

10년 만에 새단장 순천만정원 '미래도시 이정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프레스데이가 29일 순천만국가정원 일원에서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최덕림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 총감독의 안내를 받으며 식물원 및 시크릿가든, 키즈가든, 개울길광장 등 박람회장을 둘러보고 있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정원에 삽니다' 주제로 내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개최된다. 나건호 기자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막 D-2

박람회 개막 막바지 준비로 분주 4차선 도로 2차선 축소 시민개방 동선에 국내 최초 20인승 전기전 신개념 숙박 플랫폼 '실랑게' 눈길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로 진입하는 4차선 도로 중 2차선이 잔디공원으로 바뀌었다. 기존 교차로 자리에는 녹색지구본 모형물이 빙글빙글 돌아가며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도시의 중요 시설인 '도로'를 과감히 삭제한 자리에 들어선 자연친화적인 공간은 도시와 정원을 연결하는 중간지대다. 도로 축소에 반발하던 시민들도 지금은 가장 반가워하는 '그린아일랜드'는 주요 입장 동선으로 활용된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이하순천박람회)

회) 개막을 사흘 앞둔 29일, 따뜻한 봄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푸른 잔디와 개화기를 목전에 둔 1억송이의 꽃, 강변을 따라 줄지어 선 벚꽃의 만발로 박람회장 일대는 절경을 이뤘다.

박람회장을 가로지르는 순천 도심하천인 동천에는 국내 첫선을 보인 20인승 전기배인 '정원드림호'가 정박한 채 관람객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원드림호는 순천역에서 내리는 외지 방문객을 박람회장까지 실어 나르는 역할을 담당한다.

박람회장은 개막 전 막바지 준비로 분주했다. 세계정원, 테마정원, 참여정원 등 순천박람회를 채우는 국내외 기업, 작가, 협회, 지자체 등은 부지런히 작품을 손질하며 관람객 맛을 준비로 바쁜 모습을 보였다. 올해는 세계정원은 12개소, 테마정원 20개소, 참여정원은 12개소 등이 선보여진다. 최소 4억원에서 최대 12억원을 투입해 고품질인 각양각색의 정원들도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 정원박람회를 수놓은 꽃은 1억송

이, 나무는 모두 84만그루다. 형형색색의 꽃과 아름다운 나무의 모습을 바라보며 관람객들은 다양한 루트로 정원을 거닐 수 있다.

2013년 개막 당시 많은 관람객들의 사랑을 받았던 '꿈의 다리'가 2023년 버전으로 다시 태어났다. 순천박람회조직위원회는 꿈의 다리에 전시된 많은 사람들의 꿈을 보전하기 위해 특히 신경을 썼다고 전했다.

이번 박람회의 가장 큰 특색은 '어싱길'이다. 몸과 마음이 지친 현대인들에게 양질의 토양 위에서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체험을 선사한다. 모든 잔디밭 가장자리에는 굵고 부드러운 모래길이 깔려 있다. 원래 논두렁으로 사용하던 부지 위에 자갈을 깔고, 그 위에 또 두꺼운 굵은 모래길을 층층이 쌓아 약 15km의 모래길이 완성됐다.

박람회장은 모든 곳이 '무장애' 시설로 누구에게나 열려있으며, 반려견도 출입할 수 있다. 10년 전 정원박람회 때 오후

7시였던 폐장시간은 오후 9시까지 늘렸다. 10년 전, 도시와 단절된 정원이라는 평가를 벗어나기 위해 도심과 정원의 중간지대를 조성해 시민들에게 개방했다.

이번 순천박람회는 정원산업의 미래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원 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숙박시설인 '실랑게'가 대표적이다. 정원 속 캠핑장을 연상시키는 실랑게는 지역에서 나고 자란 식재료로 최고의 음식을 제공하고, 클래식공연과 영화감상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원, 음식, 힐링이 어울러진 신개념 숙박 플랫폼으로 향후 정원 산업의 발전가능성도 제시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순천박람회조직위원장인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번 순천박람회는 순천만과 국가정원을 넘어 도심 전체로 정원을 확장시켰다"며 "도심에 새로운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시민이 스스로 정원을 가꾸어나갈 수 있도록 해 미래 도시발전의 이정표가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3면 최황지 기자

'2038 하계아시안게임' 광주·대구 유치 본격화 대한체육회에 개최계획서 제출

광주시와 대구시가 '2038 하계아시안게임' 유치에 본격 뛰어 들었다.

광주시와 대구시, 광주·대구시체육회는 29일 서울 대한체육회를 방문, 2038 하계아시안게임 개최계획서를 제출했다. 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만나 2038 하계아시안게임 공동유치를 비롯한 체육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제출한 서류는 대회 개최계획서 및 요약보고서, 유치 희망 도시 이행각서, 유치 희망 도시 시설물 사용허가서, 공동유치 업무협약서 등이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지난 2021년 5월 서울 국회에서 광주·대구 공동유치 선언 및 협약을 체결하고 2038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광주·대구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에 들어갔다.

이어 유치 준비위원회 출범, 100만 달빛 서명 캠페인 공동 추진, 기반 조사 및 경제효과분석 공동 연구,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등을 추진했다. 지난달에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거쳐 대한체육회에 제출할 개최계획서를 완성했다.

광주시는 대구시와 공동유치를 통해 양 도시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최계획서 제출에 따라 대한체육회는 유치희망도시 현지실사와 심의를 거쳐 국내 후보 도시를 확정하게 된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제행사 개최계획서 제출,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 심의, 아시아올림픽평의회에 유치신청서 제출, 아시아올림픽평의회 현지실사 등의 절차를 밟아 최종 개최도시가 확정될 예정이다.

박상지 기자

제20회 호남마라톤

대회일시 2023년 4월16일(일) 오전7시~
대회장소 승촌보 영산강문화관 뒤 광장
대회코스 승촌보 영산강문화관 ~ 나주 영산교
종 목 남·여 개인전 10km, 하프
참가비 30,000원

참가신청 호남마라톤 홈페이지 (www.호남마라톤.kr/) / 이메일 419marathon@hanmail.net
접수마감 2023년 3월 31일(금) (선착순 500명)
참가문의 061) 375-1201

주최 全南日報
주관 전일엔컬스 마라톤세상
후원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